

비만 오면 생활하수 '줄줄'

목포 죽교천 우·오수관 아닌 박스형태 관로

각종 침전물까지 북향앞바다로... 대책 시급

목포시 죽교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북향앞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상시에는 생활하수가 북향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 처리되지만 10mm 이상의 비만 와도 생활하수는 물론 박스에 남아 있던 각종 침전물까지 빗물과 섞여 그대로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북향동·죽교동·목원동 등 1500여 세대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죽교천은 별도의 우·오수관이 아닌 박스(가로×세로 1m) 형태의 관로로 설치돼

있다. 특히 북향은 북향 회센터와 최근 문을 연 해양수산 복합센터 등 횡집이 밀집된 곳으로 이들 횡집 대다수가 북향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다 수족관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위생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화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 먼 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다 쓰던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최근 죽교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강찬배 의원은 "합류식 하천이라 해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평상시에도 생활하수가 100%로 북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면서 "무조건 쉬쉬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하수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28억(국비 160·시비 68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미 환경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신청해,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초록빛 표주박 터널... 무더위 썩

해남군 문내면사무소 인근에 표주박이 주렁주렁 열려 색다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 표주박은 내년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전라 우수영 용쟁이 축제'에서 관광객들의 음식을 담은 그릇으로 사용하게 된다.

해남군 문내면사무소 인근에 표주박이 주렁주렁 열려 색다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 표주박은 내년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전라 우수영 용쟁이 축제'에서 관광객들의 음식을 담은 그릇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학교폭력 예방교육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원)은 최근 남양중학교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충식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전남지부장은 강연을 통해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학교폭력의 개념과 법률적 이해, 학교폭력의 원인, 피해자 및 가해자 지도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해남 군립도서관 명품도서관 됐다

10만 장서 보유 주민 1인당 1.2권

해남 군립도서관이 10만 장서를 돌파, 명품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2년 4월 개관 당시 1만 7000권으로 시작한 군립 도서관은 매년 1만여 권의 장서를 꾸준히 확충해 10년 만에 주민 1인당 1.2권의 장서 시대를 열었다.

군립 도서관은 그동안 주민들이 신청하는 희망도서를 적극 확보하는 동시에 교양도서와 베스트셀러, 아동·청소년 도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도서대출도 이달부터 1인당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보유 장서는 ▲일반 6만6292권 ▲

아동 2만3385권 ▲비도서 3091점 ▲전자자료 7570점 등으로 모두 10만338권이다.

해남 군립 도서관 관계자는 "독서회원은 1만3000여명으로 전체 주민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지식창고, 복합문화센터, 평생학습공간으로,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일등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 군립도서관은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2009년 대통령상을 시작으로 3년 연속 우수도서관 선정 및 이용자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 임성지구 택지개발 탄력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내달 지장물조사·2016년 준공

목포시 임성지구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과 개발계획 등 구체화 방안이 마련됐다.

목포시는 지난 25일 자문위원·용역사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구계 설정, 주요 지장물 현황, 목포 임성지를 비롯한 하나로 마트 주변 편입 방안 검토,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계획기초 마련, 사업시행 조건, 공공·민간 출자 참여, 향후 일정계획 등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중점 논의됐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구 구역계가 설정되면 주민공방 절차와 주민 공청

회를 거쳐 구역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제3섹터 환지(혼용)방식에 따른 입찰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8일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8월부터는 지구내 기초현황조사, 토지·지장물 조사를 착수해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사업단 관계자는 "개발계획(안)이 수립되면 9월부터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갖고, 토지 소유자의 사업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내년 실시설계와 환경계획인가를 받은 뒤 본격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6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부지 188만7000㎡에 1804억 원을 투자해 주거·유통·상업정보통신 등 21세기형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구축사업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섬마을에 울려 퍼진 오페라 선율

빛소리오페라단, 신안 신의중서 콘서트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남짓 들어가야 하는 신안군 신의도에 오페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빛소리 오페라단은 지난 25일

신안 신의중학교 화랑관에서 신의초등학교·신의중학교·신의어린이집 학생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예술여행' 사람·희망·나눔콘서트'를 선

보였다.

빛소리 오페라단은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농협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순회 공연을 갖고 있다.

신의도에 오페라단이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악기를 싣고 와서 공연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생 처음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의초등학교 이준규 교장은 "신의초등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문화 의식을 함양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길러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전 북

부안, 명품 양파 주산지 자리매김

4억 사업비 들여 고품질 종자 지원

부안군은 전국 최고의 명품 양파를 생산하기 위해 고품질 종자를 농가에 지원한다.

부안군은 내년도 '명품양파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종자를 군비 2억원 등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생산농가와 유통업체가 파종전 사전계약을 통해 명품 종자를 선정, 공급하는 사업으로 ha당 150만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5만원이 순수 군비로 지원된다.

올해의 경우 부안 양파는 지역내 350ha(824농가) 규모의 면적에서 1만8000여t 생산돼 전년도 보다 28

억원이 늘어난 99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특히 부안지역 양파는 무안과 경남 함양 등 양파 집산지보다 지역과 달리 해풍을 맞고 자라 내병성이 강하고 저장성도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품질 명품양파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해 양파가 부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명품양파 생산·판매를 위해 지난 2010년 양파파종 시스템, 양파수확 트랙 등에 1억4000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2억6000만 원을 들여 양파 저장설비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年 수익 1억 이상 귀농인 20명

고창 '귀농·귀촌 TF팀' 가시적 성과 상반기 도시민 481세대 883명 전입

고창군이 지난 4월부터 귀농·귀촌인들에게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 TF팀'을 본격 가동,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올 상반기에 고창으로 전입한 도시민은 총 481세대 883명으로 귀농인은 248세대 475명, 귀촌인은 233세대 408명으로 집계됐다.

연별별 현황은 40대 127명(27%), 50대 125명(26%), 20~30대 123명(25%), 60~70대 106명(22%)으로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20~50대가 375명으로 78%를 차지했다.

특히 연간 주소득 1억원 이상 올라고 있는 귀농인은 총 20명에 이른다. '역대 귀농인'이 제배하는 주요작물은 수박과 복분자·고추·인삼·블루베리·오디 등이고, 농지면적은 적게는 0.7ha에서 많게는 9.1ha까지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군이 지난 2007년 전북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한 데 이어 수요자 중심의 귀농·귀촌 학교 운영, 농가주택 수리비 및 영농 정착금 지원 등 체계적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밑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귀농·귀촌 TF팀'을 출범시켜 준비된 맞춤형 시스템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도우미', '읍·면장과 대화의 날', '귀농·귀촌 선도농가'를 선정해 운영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강수 군수는 "1955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며 "분주하고 각박한 도시를 떠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며 정겨운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고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자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강천산 갈매 수박 속살만

2008년부터 5년째 '수박 속살만 가져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순창군 직원들이 강천산 대표소양에서 피서객들이 가져온 수박을 잘라 속살만 용기에 담아주고 있다. 군은 쾌적한 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단 신

선유도 해수욕장서 '서머 페스티벌'

'2012 서머 페스티벌'이 28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선유도관광진흥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흥겨운 댄스 공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개장한 선유도 해수욕장은 오는 8월15일까지 운영된다. 갯벌체험, 선유도 도보 여행길인 구불 8길, 자전거 하이킹, 바다낚시 등 체험거리가 다양하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시기동 자치센터 독거노인에 삼계탕

정읍시 시기동 주민자치센터는 최근 관내 독거노인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인 전복 삼계탕을 무료 제공했다.

최창호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과거 1960~1970년대 보릿고개를 겪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이제는 대접받고 편

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매년 여름철에는 노인들을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는 한편 명절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불우 이웃 돕기를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김제경찰서, 직원 정신건강 교육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6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김제 정신보건센터 유일한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시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범적인 경찰상 정립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유일한 센터장은 "경찰직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해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스트레스 원인과 해소법 등을 통해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음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고창군, 여성 일자리센터 이동상담

고창군은 지난 24일 지역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북여성 일자리센터 이동상담'을 추진했다.

이날 지역 구직여성 21명은 직접 관내 업체중 여성친화적으로 경영하는 연령전자와 사임당 푸

드를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업체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용요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적성에 맞는 직업 진단 서비스와 취업준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